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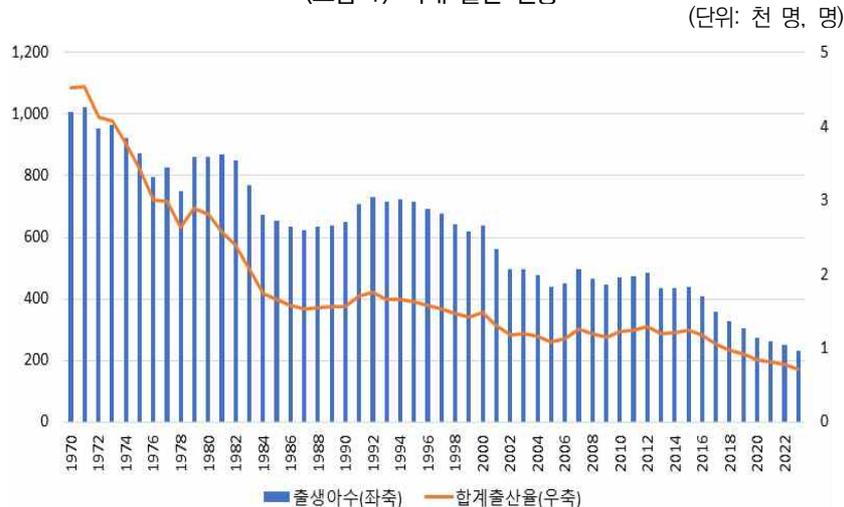
## 요약

- 2023년 신생아 수와 함께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, 저출생 극복에 보험산업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신·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할 수 있음
- 미국, 영국, 호주와 같은 서구 선진국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의 대체형 또는 보완형으로 각 국가의 현실에 맞게 임신·출산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며, 시장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
  - 미국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의 대체형으로 기본적으로 임신·출산을 보장하지만, 보험료 인하와 역선택 방지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보장에서 제외하기도 함
  - 영국과 호주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의 보완형으로 임신·출산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(영국)하거나 부담보기간(12개월)을 두는 방식(호주)으로 역선택을 관리하고 있음
- 일본, 중국, 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임신·출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음
  - 민영건강보험은 공적 보험과 별도로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며, 임신·출산 비용은 보장하지 않음
-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임신·출산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대부분 보장되고 있으며, 국내 보험회사들은 통상적인 임신·출산 비용은 보장하지 않음
  -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실손 또는 정액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있음
  - 임신·출산을 직접 보장하지는 않지만 임신·출산 시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는데,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성보험과 출산 시 보험료를 납입 면제하거나 추가 보장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음
-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임신·출산 관련 보험상품은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될 수 있음
  - 민영건강보험에서 임신·출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 원칙을 만족하고 시장성이 있어야 함
  -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역선택 관리가 가능하고 수요도 있는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가장 적절해 보임
  -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해 좀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

## 1. 서론

- 2023년 신생아 수는 23만 명, 합계 출산율은 0.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, 다양한 정책 실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는 실정임
  - 신생아 수는 불과 13년 전인 2010년(47만 명)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음
  - 합계 출산율 0.72명은 한 세대의 인구가 1/3로 감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,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 1.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
    -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으며,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더 많이 진행된 일본(1.3명)의 55% 수준임
  - 이에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, 육아휴직 제도 확대, 보육 인프라 확충,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,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,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

〈그림 1〉 국내 출산 현황



자료: 인구동향조사(통계청)

- 저출생 극복과 출산율 제고 노력에 보험산업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신·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데, 본고에서는 국내외 현황을 검토하고 임신·출산 관련 보험상품의 필요성과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
  -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,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음
  - 그러나 소비자들은 임신·출산 관련 보험상품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, 관련 보험상품은 임신·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

## 2. 서구 주요 국가 민영보험회사의 임신·출산 관련 보장 사례

- 미국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의 대체형으로 1차 의료보장 역할을 하며, 임신과 출산을 기본적으로 보장함<sup>1)</sup>
  -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 건강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보장하도록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ACA (Affordable Care Act)는 개인보험에서도 임신·출산 및 신생아 관리를 포함한 산모 서비스 보장을 요구함
    - 그러나 기업 형태나 플랜의 종류에 따라 임신·출산을 보장하지 않는 예외를 둘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함
    - 개인보험(ACA 적용 제외 상품인 경우)에서는 역선택 관리와 보험료 인하를 위해 임신·출산 보장을 제한할 수 있음
- 영국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 건강보험(NHS)의 보완형으로, 임신과 출산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음<sup>2)</sup>
  - 민영건강보험은 질병에 대한 필요하고 적극적인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, 임신이나 출산 중에 필요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적 건강보험에서 보장받도록 함
    - 임신과 출산은 질병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달린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음
  - 그러나 임신과 출산 중에 겪는 특정 합병증이나 의료적 상황은 민영건강보험에서도 보장함
    - 일상적인 임신·출산 과정이 아닌, 자궁외 임신, 자간증, 유산 및 사산, 산후 출혈 등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이 해당함
- 호주의 민영건강보험의 고급플랜은 임신·출산을 보장하는데, 부담보 기간을 두어 역선택을 관리하고 있음<sup>3)</sup>
  - 공적 건강보험제도(Medicare)를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, 민영건강보험이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함
    - 공립 병원이나 출산 센터에서 공공 환자로서 진료를 받을 경우 Medicare로 보장되므로 무료임
    - 그러나 사립병원에서의 출산은 Medicare가 적용되지 않으며, 출산 비용은 상당히 높은 편임
  - 정기적인 산모 관리 및 일반적인 임신·출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은 고급플랜에 한정됨
    - 민영건강보험의 고급플랜은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며, 산후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제공함
    - 임신 합병증 등 임신 관련 질환은 저렴한 민영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경우도 있음
  - 그러나 민영건강보험의 임신·출산 보장은 역선택 방지를 위해 12개월 부담보 기간(waiting period)을 요구함
- 이들 국가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 보장의 대체형/보완형임에도 불구하고, 보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음
  - 민영건강보험에서는 임신·출산을 보장하지 않거나, 보험료 수준 등 필요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기도 하며, 보장하더라도 부담보 기간을 두어 역선택 방지를 하고 있어, 기본적인 보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됨
  - 서구 주요 국가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, 시장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적용에 참고할 수 있음<sup>4)</sup>

1) Kaiser Family Foundation([www.kff.org](http://www.kff.org)); The U.S. Centers for Medicare & Medicaid Services([www.healthcare.gov](http://www.healthcare.gov))

2) [www.bupa.co.uk](http://www.bupa.co.uk); [www.mytribeinsurance.co.uk](http://www.mytribeinsurance.co.uk)

3) [www.pregnancybirthbaby.org.au](http://www.pregnancybirthbaby.org.au); [www.bupa.com.au](http://www.bupa.com.au); [www.medibank.com.au](http://www.medibank.com.au)

### 3. 아시아 국가 민영보험회사의 임신·출산 관련 보장 사례

- 일본, 중국,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의 민영보험은 서구 국가들과 달리 공적 보장과 별도로 임신·출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하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임
  - 이들 국가에서 민영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의 대체형이나 보완형이 아니므로, 선택한 상품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나 의료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
  - 대부분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형태로,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의 정액 보상 보험과 유사함
    - 보험 가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, 통상적인 임신·출산 비용은 보장하지 않음
    - 대신 임신·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하는데, 국가·상품별로 세부적인 보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보장 구조를 가지고 있음
  
- 중국 태강보험은 29종의 임신 특정질환에 대한 입원 의료비를 보장하며, 신생아 선천 기형도 보장함<sup>5)</sup>
  - 대상 질환에는 임신당뇨, 사산, 전치태반, 입덧, 자궁외 임신, 막의 조기 파열, 혈액형 부적합 등이 포함됨
  - 의료보장 외에 임신 건강, 상담 심리, 산후 지도 등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됨
  
- 홍콩 AXA의 “Zhibaobao 임신 및 양육 보호” 보험은 임신 합병증과 신생아 선천성 질환을 보장하고, 병원의 과실로 인한 임산부의 사망이나 영구장해, 신생아의 사망 등을 보장함<sup>6)</sup>
  - 보장하는 임신 합병증에는 사산, 태반 조기 박리, 유착 태반, 양수 색전증, 임신성 급성 지방간, 임신 중 파종성 혈관내 응고, 자궁절제술로 이어지는 산후 출혈 등이 있음
  
- 일본의 민영건강보험도 중국 및 홍콩과 유사하게 일상적인 임신·출산 비용을 보장하지 않으며, 임신·출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보장하고 있음<sup>7)</sup>
  - 일본은 국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민영건강보험상품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
  - 일반적인 임신·출산 비용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보장되고 있으므로, 민영건강보험에서는 임신·출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함
    - 자연분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 지원금을 통해 대부분 충당이 가능하지만,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부터 개인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됨
    - 임신 중에도 가입이 가능(언더라이팅을 통해 제한될 수 있음)하며, 소액단기보험회사 상품들도 다수 포함됨

4) 프랑스, 독일 등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미국, 영국, 호주 등과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있어, 임신·출산은 큰 틀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음

5) 중국 태강보험 홈페이지([www.tk.cn](http://www.tk.cn))

6) 홍콩 AXA 홈페이지([axa.com.hk](http://axa.com.hk))

7) [www.taiyo-seimei.co.jp](http://www.taiyo-seimei.co.jp); [www.rakuten-life.co.jp](http://www.rakuten-life.co.jp); [www.nissay-plus.co.jp](http://www.nissay-plus.co.jp); [www.hug-hoken.com](http://www.hug-hoken.com)

〈표 1〉 일본 민영건강보험의 임신·출산 보장 사례

회사	주요 보장 내용	비고
태양생명	임신·산후 우울증, 임신 고혈압 증후군, 수혈(출산 시)	-
라쿠텐 생명	임신·출산 합병증, 유산, 제왕절개, 자궁근종, 자궁 내막증, 난소부종 등	임신 중 가입 가능
닛세이 플러스(소액단기보험회사)	조산, 유산, 산후 유선염	임신 중 가입 가능
스마트 플러스(소액단기보험회사)	조산, 유산, 임신당뇨, 임신고혈압 증후군, 긴급 제왕절개술, 태반용 손박리술, 자궁 파열 수술 등	임신 19주까지 가입 가능

#### 4. 국내 임신·출산 관련 보험상품 현황

○ 통상적인 임신·출산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대부분 보장되고 있음

- 출산하는 의료기관 및 산모·태아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, 통상적인 자연분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보장하고 있으며, 제왕절개 비용도 본인은 20%만 부담하면 됨
- 산모가 부담할 전체 비용은 병원 규모, 병실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, 자연분만은 50만 원, 제왕절개는 1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인 비용으로 알려져 있음
- 정부는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태아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,<sup>8)</sup> 임신 중 특별한 의료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신·출산 과정에서 개인의 비용적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
  - 이 외에도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산모건강관리(영양관리, 체조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목욕, 수유지원 등), 산모 식사준비, 산모·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함
  - 지방자치단체도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서울시는 산후조리 비용으로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함<sup>9)</sup>

○ 통상적인 임신·출산 비용을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상품은 없는데, 이는 수요 측면과 보험의 원리(역선택 관리)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

-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제도를 통해 임신·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, 민영건강보

8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24. 1. 5), “임신, 출산, 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”

9) <https://www.seoulmomcare.com/notice/pcGuide.do>

험을 통한 추가 보장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

- 또한 임신·출산 비용을 민영건강보험에서 보장할 경우 역선택 발생의 우려가 있는데, 이는 관련 건강보험 상품개발이 어려운 이유임

○ 국내 민영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임신·출산 관련 보험상품은 임신·출산 비용을 보장하는 대신, ① 임신·출산 중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하거나, ② 임신·출산 시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

- 임신·출산 과정의 의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실손 또는 정액 보상하는 민영건강보험상품이 있음
  - 일부 보험회사는 단독상품 또는 태아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
  - 대표적인 보장으로는 통상 분만을 제외한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으로 인해 입원·수술 시 정액 또는 실손 보상하고, 유산 및 임신중독증 진단비를 지급하며, 임신·출산 및 산후 관련 질환으로 산모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함
  - 보장하는 대표적인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으로는 자궁외 임신, 습관성 유산,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, 자궁경관 무력증, 전치태반, 조기 진통, 임신성 당뇨, 심한 입덧, 출산 전 선별검사 이상 소견 등이 있는데, 앞에서 살펴본 아시아 국가의 민영건강보험과 보장 내용이 유사함
  -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은 우발적 사고에 해당하여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작고, 경우에 따라 피보험자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장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
- 이 외에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을 직접 보장하지는 않지만 임신·출산 시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으로,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성보험과 출산 시 보험료를 납입 면제하거나 추가 급부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음
  - 2023년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도입된 보험상품이 대부분으로, 임신·출산 관련 비용 및 위험 보장과는 거리가 있음
  - 확정금리 5%를 지급하는 저축성보험에서 결혼·출산 보너스로 만기 시 보너스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는데, 낮은 수익구조와 사업비로 인해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들이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
  - 출산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,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이후 출산하면 보험기간 중 1회 한정으로 1년간 보험료를 납입 면제하는 상품과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을 2배 확대 보장하는 특약이 있음

## 5. 결론 및 시사점

○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이, 민영건강보험에서 임신·출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장이 보험 원칙을 만족하고 상품도 시장성이 있어야 할 것임

- 민영보험은 역선택 관리가 중요한데, 임신·출산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임신·출산 비용을 민영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임
- 보험상품이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장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함
  -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, 미국과 호주에서는 임신·출산 비용에 대한 보장 수요가 있지만, 중국·홍콩·일본 등에서는 관련 수요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, 이러한 수요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로 민영건강보험의 임신·출산 관련 보

장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

- 우리나라도 임신·출산 관련 수요를 파악하고, 이를 보험상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

• 또한 보험회사는 관련 보험상품을 통해 이익 확보가 가능해야 판매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임

- 소비자 혜택 확대를 이유로 단순히 보험료만 낮출 경우, 보험회사와 모집인들 모두 충분한 이익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판매에 소극적일 수 있어, 보험상품이 시장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음

○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임신·출산 관련 보험상품은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이며, 관련 보험시장의 확대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됨

•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은 우발적 사고이고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작으므로, 보험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

- 임신·출산 관련 질환 보장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판매하는 임신·출산 관련 보험상품과 유사한 형태임

- 일부 국내 보험회사도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, 아직은 상품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

•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해 좀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

- 출산 연령이 증가하고 있고, 임신중독증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,<sup>10)</sup> 관련 보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

- 국내에서도 임신·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개발·판매되고 있지만, 아직은 상품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므로,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임

• 임신·출산 관련 질환 보장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장기보험 위주의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, 태아보험과 연계한 상품개발로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---

10) 의학신문(2021. 5. 21), “임신중독증 환자 최근 5년간 약 70% 증가”; 임신중독증 환자는 2016년 8,112명에서 2020년 13,757명으로 5년간 약 70% 증가하였는데, 고령·고위험 산모일수록 임신 중 합병증 및 임신중독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